

□ 축하

희망찬 21세기, 당신 곁에 있습니다.

조영식
(학원장)

졸업생 여러분들의 형설의 공을 축하하며 아울러 동문운을 떠나 새롭게 사회로 진출하는 여러분들의 앞날에 큰 희망과 성공이 깃들기를 한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경희대학은 오늘 역사적인 큰 기쁨을 맞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우리 동문중 한 사람이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또 취임도 하기 전에 IMF 국난을 맞아 오늘까지 이를 슬기롭게 헤쳐오고 있는 준비된 대통령이 명예박사학위를 받게 됨을 생각하니 더 없는 기쁨과 깊은 감회를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역사적인 자리에서 새 대통령이 취임하여 국장을 수행하는 동안 우리 경희가족들은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조금도 폐가 되지 않고 그 분이 훌륭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또한 역사에 남을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힘껏 도울 것을 굳게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영광된 학위를 수여받게 되는 졸업생들은 김대중대통령 당선자께서 만년을 극복하고 온세대의 환호속에 당당히 대통령에 당선되신

그 일을 귀감으로 삼아 경희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조국과 인류사회를 위해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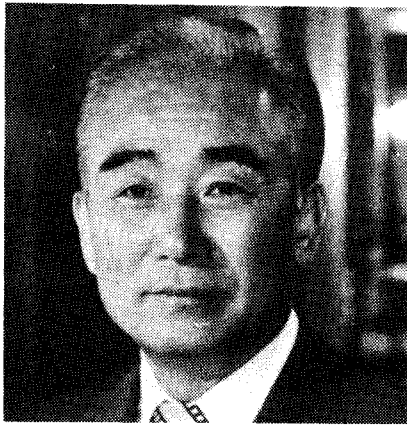
진애하는 경희인 여러분!

우리 경희는 금년으로 49년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내년으로 개교 50주년과 동시에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여는 첫해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에 즈음하여 희망찬 내일을 바라보며 우리의 역사적 소명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 우리 경희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잠시 생각해봅시다. 우리 대학은 과거 조그만 2년제 초급대학으로 시작하여 6·25동란의 잣바다 위에서 오늘 한국굴지의 대종합학원을 이룩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대학은 학문의 요람으로서 뿐만 아니라 선구적으로 나라의 미래를 개척하고 추진하는데 항상 앞장서서 봉사하고 기여를 해야 한다는 정신으로 국가발전과 인류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50년대 후반 전후복구와 빈곤탈퇴를 위해 농촌계몽봉사활동에 나서 오늘의 법대학자원의 농촌봉사활동의 효시가 되었고 60년대 초반에는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가치를 높이 내걸고 잘살기 운동에 앞장 서 정부차원의 새마을운동을 유도해 내었습니다.

70년대에는 고도의 경제성장에 역비례하여 우리사회가 퇴폐풍조, 이기주의가 만연하는 불건전한 사회가 되어감을



보고 정신풍도를 일신하여 건전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밝은사회운동을 전개하여 정부차원의 새마을운동, 그리고 오늘의 바르게살기운동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에는 온인류가 3차 핵대전의 위험 앞에서 전율하고 있을 때 평화의 날과 해를 제정, 공포제 함으로써 냉전의 벽을 허물고 신화해시대를 여는데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인류의 가슴에 평화애호·수호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인류역사상 최초로 세계평화백과사전을 편찬하여 영국의 저명한 퍼가몬 출판사에서 발간하였습니다.

90년대에 이르러서는 물질문명의 여파에서 오는 배타적 이기주의, 감각적

우리의 미래는

결코 미래에 있지 않고

오늘에 있으며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향락주의로 인해 메마르고 황량한 인간사회를 만들어 감에 따라 인간이 경시되고 인간성마저 상실된 인간부재의 사회가 되어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94년부터 도덕과 인간성 회복을 통한 인류사회 재건운동, 즉 제2 르네상스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의 모교 경희는 항상 새 빛을 창조하는 역사의 향토로서 그 모임을 다해온 대학중의 대학으로 자부해오고 있습니다.

진애하는 경희인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결코 미래에 있지 않고 오늘에 있으며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21세기 우리세대의 중심은 이제 더 이상 유럽이나 미국에 있지 않고 우리가 살고있는 동북아시아로 옮겨오게 되는

데 우리는 그날을 대비해야 합니다.

동방예의지국, 선진지국으로 일컬어지는 우리 민족이 물질에 쫓기고 과학기술신장에 자아를 상실하고 또한 제도와 조직, 과학기술이 인간을 역지배하는 모순을 타파하고 인간을 존중하는 인간중심의 문화복지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21세기를 맞는 우리 한국인의 소명이고 또한 새 대통령의 책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당면한 IMF경제위기를 온국민의 화합된 마음으로 슬기롭게 극복하고 아울러 적대감과 이질감으로 가로막혀 있는 남북관계를 열어내고 평화적인 민주통일을 이루어 통일된 한국으로서 동북아시아를 여는 주역국이 되어 온 인류세대에 진정한 자유와 평등 그리고 공평을 누리는 지구대협동사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해야 하겠습니다.

본인은 한없이 기쁜 오늘, 앞으로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유능한 대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뒤따라 나주시기를 기망하면서 이들 후 새로 취임하시는 대통령께서 이와 같은 역사적 소임을 다하여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뿐만 아니라 세계를 바른방향으로 이끄는 위대한 세계의 대통령이 되어 주시기를 모든 경희인과 함께 간절히 기원하면서 지난 89년 민족의 영산 백두산 천지에 가서 지은 시 한 수를 제15대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는 뜻에서 드리고자 합니다.

제46회 학위수여식

영예의 수상자 명단

총장상

원세운(기약94) 박대옥(서반아어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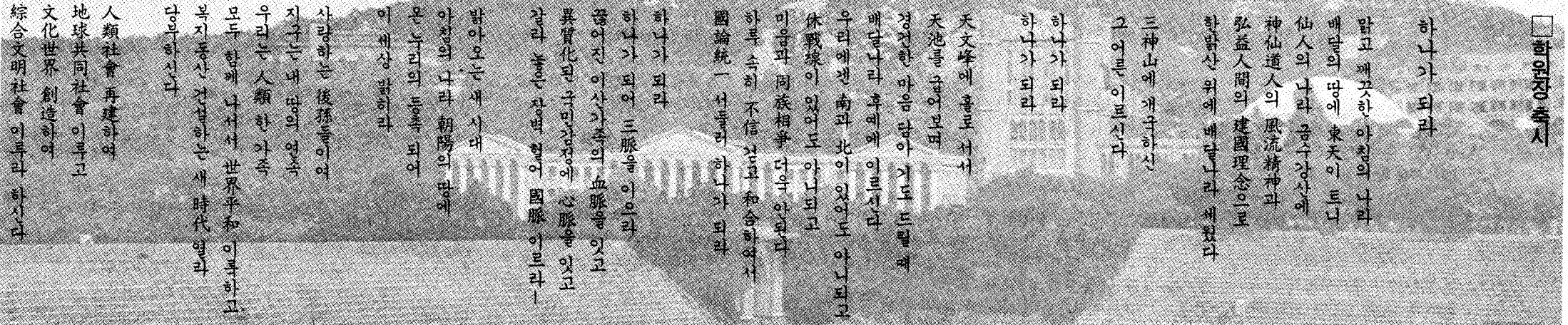
학장상

이영애(사학94) 이영탁(행정92) 최원옥(경영91) 김잔디(영교93) 신주연(의상94) 이서영(의예92) 김애경(치의92) 박재우(한외91) 정용주(약학94) 최지현(기약94) 유금홍(체육94) 박재경(일본94) 이은미(회계94) 김경원(환경90) 윤경학(기계91) 황현정(원예94) 서기호(태권도91)

우등상

이승문(국문94) 문경연(국문94) 장선경(국문94) 전현정(국문94) 엄은영(국문93) 조은영(국문94) 배수정(국문94) 김병준(국문94) 이상두(영문94) 이기범(화학91) 김지현(생물94) 박용성(수학91) 최일호(철학92) 허진영(생물(야)94) 공자원(지리(야)94) 정진주(법학91) 신하영(정치94) 정주영(경제93) 전승훈(경제90) 윤경호(경제91) 윤종국(경제91) 백상민(경영91) 오선관(무역91) 김병조(무역91) 박도영(영교90) 이남희(미교92) 신재민(석영94) 김선형(의예92) 허은희(간호94) 정은정(한외91) 양대진(한외91) 백강민(체육91) 신창주(체육92) 정보금(무용93) 최윤강(무용94) 이순민(무용94) 김한진(불문91) 방기홍(중문89) 고세아(일본94) 강선영(일본93) 전명진(일본94) 김영선(일본94) 박순옥(서반아어94) 박효림(행정93) 송준삼(행정90) 김은주(행정93) 문소영(행정93) 오세정(행정94) 최성욱(무역91) 최재현(유전94) 이은석(우주94) 조현용(기계91) 박대순(기계91) 윤정민(기계92) 김한수(기계90) 김석진(전자90) 김용석(전자91) 김성운(전자91) 김현만(전자94) 강원기(전자89) 전영호(건축91) 박종복(산업93) 한은영(원자력94) 우일탁(원자력91) 김광표(원자력91) 박성필(농학92) 허지혜(원예93) 이금주(원예93)

이상 총 87명



□ 동문들의 축하 한마디

선견지명의 지혜 안고 세상밖으로

나 는 그들에게 기고만장한 젊은이가 되라고 말하고 싶다. 기고만장함은 젊었을 때 특히 대학 졸업 후 직장 초년생일 때만 가능한 일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으로 복잡하여 젊은 혈기와 열정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 하지만 강한 도전의식과 패기가 있는 젊음은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도 앞으로 나아 갈 길을 만들어 내고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마법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아직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인생에 많은 경륜이 있어 인생이란 이런 것이고 사회생활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했다. 더군다나 요즘엔 IMF한파로 인한 환율 급상승이다 뭐다 해서 사업하는 것마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나는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랬고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로 젊음이라는 무기로 그렇게 기고만장했다. 기고만장하다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자신감(자기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나의 일에 대한 강한 열정이기도 했다. 그래서 지금도 나는 기고만장하려고 노력한다.

세상은 참으로 험난하다. 그러한 까닭에 나는 세상에 대한 접이 없이 패기와 열정만을 가지고 도전

기고만장한 젊은이가 되자

(주)좋은나라 청소년문화지 대표 〈무역학과 96년 졸〉 최석범

패기와 열정이 있는 젊음은

문제를 푸는 마법



하려는 젊은이를 보면 절대로 그냥 놔둘 수가 없다. 나 자신의 실패나 기타의 많은 시련을 통해 얻어낸 경험으로 젊은이의 기고만장함과 겁없음을 다들어 준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세상에 대한 지혜를 스스로 깨닫게 하고 싶은 것이 나의 의도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세상에 대해 눈치를 필요 없고,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맘껏 해 보면서

살아보라고 말이다. 인생은 정말 길고, 할 일은 너무 너무 많으니까.

어떤 일이나 과감히 도전할 수 있고 일을 저지할 수 있는 젊음이 있을 때 자신있게 무슨 일이든지 과감히 도전해 보길 바란다. 대신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지독히 철저하게 참고 이겨내면서 말이다.

기고만장한 젊은이가 되자!

미래를 보는 눈을 가져라

내 가 대학을 졸업하였던 1973년 당시에 도 석유 파동으로 인해 취업이 잘 되지 않았었습니다. 우연히도 지금 졸업하는 여러분들도 IMF한파로 인해 마음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25년전 나는 취업의 문이 좁은 줄도 모르고, 이제 공부를 마쳤으니 이 세상을 내 마음껏 요리(?)해 보리라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뒤떨어진 분야는 개선하여 남보다 앞서겠다고 다짐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돈 키호테 같은 생각이었지요. 그러나 이것은 젊고 어린 시절의 패기와 꿈이었고 그 꿈을 실현해 보겠다는 마음속의 다짐일 수도 있어 좋았던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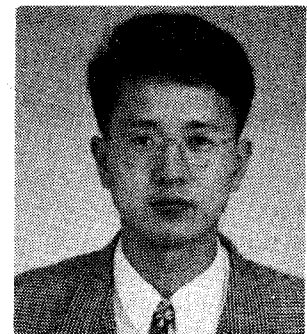
이제 대학을 나서는 여러분들의 학업은 성숙 단계에 이르렀겠으나 사회 생활을 지금 시작하려는 데 있어 이 어려운 IMF 환경을 이겨가야 한다면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30년이상 끌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남보다 앞서가는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국민소득이 늘어나면서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해 기술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창의력을 개발하여 세상에 없는 상품을 창조해야 하며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개발하여 미래 경쟁의 무기로 육성해 왔어야 했습니다.

2년여 후에 경제위기가 해소되어도 우리의 앞날은 그렇게 밝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기술력으로 생산한 값싼 상품이 없어, 인건비를 희생해야 경쟁력이 생기고, 고 부가치의 아이디어 상품이 별로 없으며, 첨단 기술투자와 인력육성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앞으로 5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5년 이후는 지금 투자해도 갈만한 무언가 해낼 수 있을 것

겸허한 자신감으로 세상을 대하라



김건철 〈무역학과 96년 졸〉 LG화재해상보험 사무국장

과거의 판단 기준이 아닌

열린마음으로

‘지’ 난 4년간의 학창시절을 보내고, 이제 청운의 꿈을 안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된 졸업생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축하와 격려를 보냅니다. 요즘같은 시기에 이러한 말들이 얼마나 당사자들에게 공허한 소리로 느껴지겠습니까. 가슴에 안겨있는 꽃다발도 여러분들의 우울한 마음을 씻어주진 못할 것입니다.

그나마 보충마이 되었던 학생이란 신분은 벗어난 지금 IMF, 실업대란, 경기침체, 정리해고 등등 들 기만해도 한숨이 나는 말들을 향해 다가가야 하는 여러분들의 심정은 정말 착잡하리라 생각됩니다.

누구나 최고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회사, 들어가지만 안정된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했던 회사, 힘들지만 열심히 해서 내 능력을 인정받고 최고의 자리에 도전해 볼 수 있다면 무엇이든 지금은 그 존립마저도 위협받는 시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판단 기준도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대표단체가 노동자들을 해고시킬 수 있는 법률에 합의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내가 모시던 사장님이 하루 아침에 낯선 말을 쓰는 외국인으로 바뀔수도 있는 이상한 세상이 지금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입니다.

당시엔 누구나 선택하는 직장에 들어간 친구에게 “너희 회사는 괜찮냐. 벌일 없느냐?”라고 묻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오랜 연애편에 금년 봄 결혼한 다던 친구가 식을 연기한다는 발표를 하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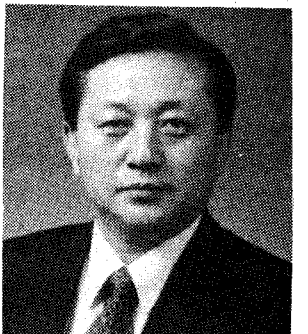
왜 우리는 젊은 시기에 이러한 어려움을 맞이해야 하는가 답답할 때도 많습니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보면 젊음이 있기에 이 시기를 맞이하는게 크게 두렵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의 젊음만큼 큰 자산도 없을테니까요.

기회는 위기속에서 더욱더 소중한 짝을 틔우는 법입니다. 금번 졸업하는 여러분들께는 과거에 가졌던 판단의 기준이 아닌 열린마음과 개방된 자세로 사회를 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통과, 저생산, 실업대란, 취업난, 정리해고등등의 것들이 이제는 결코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겸허한 자세와 더불어 그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필수적으로 인지해야 합니다.

한국통신 교환기술 연구소 소장 〈전자과 73년 졸〉 박용기

기업이 전문화의 길을 걷듯

개인도 전문가 되어야



들은 희망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대비를 잊지말아야 할 것입니다.

전문성이 부족하여 잘 알지는 못하지만 “외환 위기”란 생산성 없이 환자를 활용해 돈을 이리저리 굴리다가 남에게 폐이기도 하고, 손실을 보기도 하여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는 얘기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중매와 절약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국민성은 어려울 때 단합이 잘 되는 긍정적인 데가 있어 금모으기운동, 과소비 지양, 임금동결, 정리해고등 생존권을 양보하고 기존 상품의 수출을 늘리는데 노력하여 경제를 살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값싼 상품과 절약만으로는 선진국으로 갈 수 없으며 또 선진문화를 창조해 나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6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는 기술 국산화 정책으로 기술을 드

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학의 문을 나서는 여러분들은 눈앞의 5년을 위해 사회생활을 시작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앞으로 5년은 기성세대의 책임일 뿐 아니라 이기간이 잘못되어 사회 초년생인 여러분들이 희생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전문가가 없지만 미래를 보는 눈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바로 보고, 비효율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자세는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IMF 한파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업은 전문화의 길을 걷고, 개인은 전문가의 역량을 갖추려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적재적소에 투자할 줄 아는 능력, 제가 후배들에게 바라는 가장 큰 덕목이라고 할 것입니다.